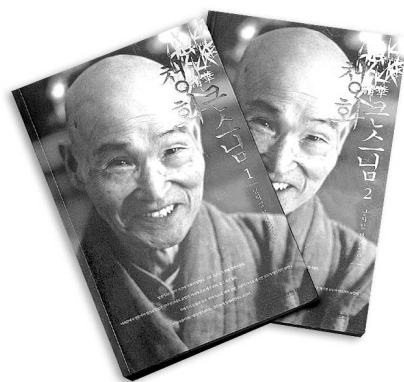


청화 스님을 소설로 읽는다



청화 큰스님
남지심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전2권 | 각권 8천5백원

스승을 만나는 것은 영혼을 살피우는 가장 빠른 길일 것이다. 게다가 그 스승이 일평생 끝날보다 치열하게 수행에 매진했던 사람이라면 후학의 정신적 성장은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넓고 깊어질 것이다. 하루 한 끼 공양하며 일생을 철저히 수행에 몰두했던 청화 스님(1923~2003·사진처럼 말이다. 소설가 남지심씨는 40여 년간 치열한 구도의 삶을 살았던 청화 스님을 <청화 큰스님>이라는 장편 소설로 그려냈다. 남씨는 소설 속에서 불교

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준'이란 인물과 함께 청화 스님의 생가와 출가 사찰, 수행처 등을 답사하며 스님의 생애를 복원해내고 있다. 우선, 소설에서 그려진 스님의 생애를 잠시 짚어보자. 일제강점기인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스님은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사재를 털어 망운중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을 펼쳤다. 이어 동서양 철학을 공부하던 중 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화상을 스승으로 출가했으며, 이후 40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도(道)가 실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이후 20여 년간 스님을 가까이서 보며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소설을 통해 남씨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인간이 육신을 갖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에 모아진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우리들은 청화 큰 스님의 모습에서 도의 실체를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화 스님의 생애를 통해 도의 보편성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남씨 스스로 청화 스님의 가르침을 운몽으로 받아들였던 까닭일까. 소설에는 손수 불 때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정진

소설속 주인공, 스님 생가·수행처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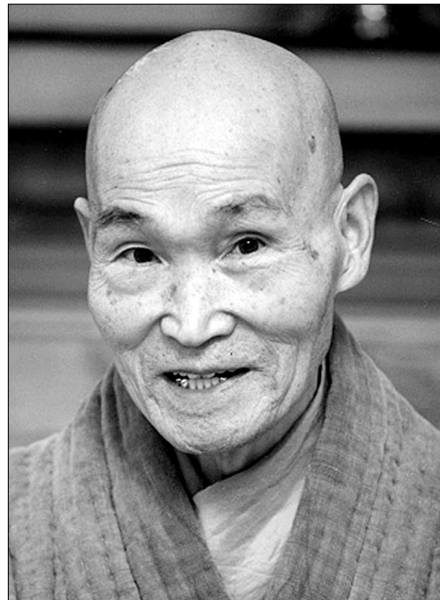
한치 빈틈 없었던 생애 생생히 복원

여 년간 진불암 상원암 백정암 벽송사 사성암 등의 토굴에서 묵언(默言)과 하루 한 끼 식사, 장좌불와 수행에 전념했다. 60세가 넘어 토굴생활을 끝낸 스님은 85년부터 10여 년간 폐찰이 되어가던 전남 화순 태안사를 중창하고 그곳에 주석했다.

남씨가 청화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태안사 시절이었다. 청화 스님을 처음 만난 날 남씨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했고, 10여년 가까이 스승을 찾아 헤매던 방향을 마칠 수

했던 모습이나, 누릉지와 원장국·물김치 외엔 상에 올리지 않았던 스님의 밥상, 열반에 들기 전 40kg이 넘지 않는 몸으로 확대경까지 이용해 <육조단경>을 번역하는 모습까지 눈에 보일 듯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당시만 해도 '외도'로 치부됐던 열불선(舍佛禪)을 체계화시키고 대중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냈던 스님의 모습에서 따뜻한 인간애와 치열한 구도정신을 간직한 성자의 모습



을 떠올리게 된다. 때문에 이 책을 덮고 나면 '불교 집안의 어른이자 우리 시대의 큰 스승' '백양사 유나 지선 스님' 이라거나 '수행자의 교본 같은 분' (실상사 前 주지 도법 스님)이라는 후세의 평가가 무조건적 찬사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헌사(獻詞)임을 느낄 수 있다. 여수형 기자 snoopy@buddhapia.com

예술이 된 깨달음의 열망

우리가 불교 미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그 속에 담겨진 '깨달음의 열망'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불가(佛家)에서 문(門) 하나를 세울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진리만을 생각하며 들어서야 한다는 뜻의 일주문과 마음을 경건하게 만드는 사천왕문, 분별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치는 불이문을 잇달아 세워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이치다.



불교의 향기, 그 다섯 아름다움
정동주
다른 세상
1만5천원

소설가 정동주씨는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불교의 아름다움을 사찰 문(門)과 꽃, 불상의 미소, 미륵불, 나한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풀어가고 있다. <불교의 향기, 그 다섯 아름다움>에서 정씨는 이 다섯 가지가 "한국인을 아름다움에 귀의하게 만든 불교 신앙의 몇 가지 특별한 정신과 예술과 기도의 자취"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화려함의 상징인 꽃은 불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법신(法身)의 행(行)과 덕(德)을 칭송하고 장엄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꽃은 대좌의 장식이나 법당의 천장 그림, 창문 장식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이러한 꽃 장식은 정씨의 눈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중생들이 미묘한 큰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로 비쳐진다.

또한 정씨는 아미타부처님의 미소에서 '목숨을 걸고 찾으면 틀림없이 대답해 주겠다'는 약속과 믿음을 잃고, 미륵부처님의 미소에서는 '돌맹이에 혼을 불어 넣어 새긴 희망을 느끼며, 다양한 나한의 얼굴에서는 누구나 해탈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처럼 17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깨달음으로 발견한 불교의 아름다움과 불교가 우리 민족에 던진 희망을 찾아보으로써 이 시대 불교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수형 기자

일본불교 발달·토착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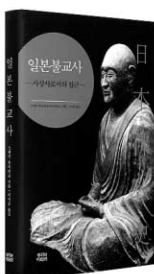
집집마다 불단을 두고, 조상을 위해 일정한 시기마다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는 일본인. 일본인에게 있어 불교는 정신세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538년 백제 성왕이 불상과 불경을 전해주면서부터 시작된 일본 불교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본 불교학의 권위자인 스게키 후미히코 교수(도쿄대학 문학부)가 지은 <일본불교사>는 사상사를 중심으로 일본불교의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문서다. 기존 일본불교사 관련서들이 종파사(宗派史)나 인물사 위주였던 것에 비해 이 책은 정토(淨土) 선(禪) 니치렌(日蓮)계 등의 영향과 반발을 아우르며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부처 숭배가 중심이 되고, 현세의 이익과 사자(死者) 공양 위주, 전통적인 신 숭배와 일체화된다는 점을 일본 불교의 특징으로 꼽으며, 불교가 일본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토착화'와 '풍화'란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곧 일본불교가 인도와 중국, 한반도로부터 전해지는 새로운 동향을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인의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그로 인해 불교가 완전히 일본화되어 가는 긴장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일본'이라는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불교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 불교사의 모습을 파악하려했던 지은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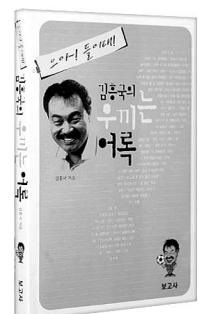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학자 나가무라 하지메 교수는 "일본 불교사를 일본인의 마음의 소원, 번민, 해결이라는 복잡한 경과로서 사상사적으로 명쾌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이 책을 평했다.



일본불교사
스게키 후미히코 지음
뿌리와이파리
2만2천원

'추구·해병대·불교' 하면 떠오르는 이는?

김홍국의 우끼는 어록
김홍국 지음
보고서 | 9천8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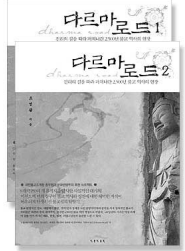


추구, 해병대 그리고 불교. 가수 김홍국을 대표하는 세 가지다. 최근 출간된 <김홍국의 우끼는 어록>에는 김씨가 이 세 가지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부터 연예계에 데뷔 시절, 길고 지난했던 무명 시절 그리고 2002년 대선과 월드컵에 얽힌 이야기까지 그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대한불자가수회 회장과 팔만대장경 등만 홍보대사, 생명나눔실천회 홍보대사 등을 맡아 불법(佛法) 홍보에 앞장서고, '무상 보시'를 좌우명으로 삼아 자선공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에서 '천상 불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김씨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방송사고'에 가까운 실수담이다. UCLA 대학을 '우크라 대학'으로 읽거나 게스트에게 '시간이 없어 안타깝다'는 말을 하려다 '시간이 아깝다'고 말해버리는 등 SBS FM 라디오 '김홍국 박미선의 대한민국 특급 쇼'를 진행하면서 남김 에피소드들은 이제 그의 '어록'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주고 있다. 자칫 고의적인 실수나 악의로 비칠 수 있는 이런 실수들도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평소 모습 덕분에 유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불교 원류를 찾아서

조병철 불교신문 기자가 1700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의 원류를 찾아 인도와 네팔을 시작으로 9개국 250여 개 불교 유적지를 탐방한 후 그 기록을 <다르마 로드>란 책으로 펴냈다. '다르마 로드(Dharma Road·진리의 길)'는 지은이가 문명의 전래 경로인 실크로드에 빛대 불교가 전래된 길을 지칭한 말이다.



다르마 로드
조병철 지음
작은박물관
전2권
각권 3만2천원

지은이는 조계종 총무원과 문 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2002년 3~5월(네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같은 해 9~10월(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2003년 9월(북한 개성), 같은 달 15~23일(모하산, 평양, 구월산)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불교성지를 답사했다.

책을 읽다 보면 '오늘날에도 불교가 유효한가'라는 화두가 답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불교의 탄생지이지만 정작 불교 쇠퇴의 길을 걸었던 인도는 알베르트카르(1891~1956) 박사로 인해 다시 불교중흥의 불이 불기 시작했고, 문화혁명 이후 쇠락했던 중국 불교 역시 오늘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에 들기 위해서는 문(門)을 지나야 한다. 문은 다른 세계 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안과 밖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다. 사진은 합천 해인사의 천왕문.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제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심혈을 기울인

한글 세대를 위한 독송용 경전 ①~⑩

정확하고 유려한 번역, 편안하고 시원한 편집, 알기 쉬운 용어해설!

1대장백 무비 스님과 경북대 조현춘 교수가 불자들에게 사랑 받는 주요 경전들을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도록 편찬하였다. 한글 세대가 독송하기 좋게 경전의 뜻을 정확히 전하면서 쉽고 유려한 우리말로 옮겨 놓았으며, 기존 독송용을 위해서는 한글 독송용 원문을 함께 실고 있다.

- ① 지장경 218쪽 / 7,000원
- ② 관음경 94쪽 / 5,500원
- ③ 불유교경 108쪽 / 6,000원
- ④ 백팔대참회문 136쪽 / 5,500원
- ⑤ 금강경 194쪽 / 6,500원
- ⑥ 아미타경 90쪽 / 5,000원
- ⑦ 보현행원품 190쪽 / 6,500원
- ⑧ 예불문(천수경) 122쪽 / 5,500원
- ⑨ 일반법회 120쪽 / 5,500원
- ⑩ 매일법회 96쪽 / 5,000원